



보도 일시	2022. 3. 30.(수) 17:00	배포 일시	2021. 3. 30.(수) 16:00
담당 부서 <총괄>	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장 최진규 (044-215-8580)
		담당자	사무관 류소윤 (lyusoyoon@korea.kr)

홍남기 부총리, 청년마을·물가여건 점검 현장방문 - 서천 '삶기술학교', (주)오리온 익산2공장 -

- 홍남기 부총리는 '22.3.30일(수) 오후 서천 청년마을 '삶기술학교'를 방문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정착토록 돕는 청년마을 현장을 점검하고,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청취하며 격려하였음
- 이어 (주)오리온 익산 2공장을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식품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가공식품 물가 여건을 점검하였음

현장방문개요

- 일시 : `22.3.30(수) 14:30~16:50
- 장소 : 서천 '삶기술학교*' 및 (주)오리온 익산2공장
- * 우리나라에서 제2호로 조성된 청년마을로, 지역 유희공간을 주거·창직 기반 청년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, 도시청년의 지역살이에 필요한 자립공동체학교(삶기술학교) 운영

- 홍 부총리는 먼저 서천 청년마을 '삶기술학교'를 방문하여,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애쓰고 계신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
- 또 정부는 지역의 유희자원을 활용하고, 청년들에게는 지역과 연계한 창업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'18년부터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해 옴을 언급
-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서천 '삶기술학교'가 모범사례가 되어, 전국의 청년 공동체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,
-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이제는 자립 단계에까지 이른 서천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, '21년부터는 청년마을 사업이 12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본격적으로 청년 공동체 연계·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
- * 청년마을 조성현황: ('18)1(목포) ('19)1(서천) ('20)1(문경) ('21)12 ('22)12(예정)

- 또한 지역주민들도 ‘주민협의체’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,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도 공간·예산 등 지원에 나서고 있음을 언급
- 이어 ‘삶기술학교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,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함
- 홍 부총리는 한산 소곡주와 같은 지역 특화산업이 청년의 아이디어를 만나게 된 ‘삶기술학교’의 사례가 제대로 성공하여, 다른 지역과 청년 공동체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고 격려하며,
 - 정부도 지역과 청년이 협업하여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
- 이어서 홍 부총리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(주)오리온 익산 2공장을 찾아 국내 식품 기업의 애로 요인을 청취하고, 가공식품 물가 여건을 점검하였음
 - (주)오리온은 지난 66년(‘56년 설립) 동안 제과류 분야에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며,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, 지난 9년간 자사 제품 가격을 동결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
-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·우크라이나 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이 주요 현안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조급의 소홀함 없이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함
- 특히, 가공식품업 관련해서는 물가관계장관회의(3.4일),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등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안정¹⁾ 및 업계 부담 완화²⁾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
 - 1) ①식품·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(△0.5%p), ②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 확대 (겉보리 4→25만톤, 소맥피 3→6만톤), ③사료용 곡물 대체 수입처 발굴·배합비중 조정 등
 - 2) ①대두 수입권 공매 3월 조기 추진(평시 4~5월→3월), ②감자분 저율관세할당(TRQ) 물량 1,500톤 증량, ③식품업계 수출지원용 임시 선박 지원대상 확대 등
-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·세제 등의 지원과 규제 개선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
- 홍 부총리는 현장방문을 마치며,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험 고조, 공급망 차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,
- 앞으로도 식품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함

담당 부서 <총괄>	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진규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류소윤 (lyusoyoon@korea.kr)
<공동>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희재 (044-215-8570)
		담당자	사무관	신기태 (shinkt89@korea.kr)

